Ⅱ. 2012학년도 1차 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②	2. ④	3. ⑤	4. ④	5. ③
6. ③	7. ②	8. ②	9. ①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①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②	20. ③
21. ②	22. ②	23. ⑤	24. ③	25. ④
26. ②	27. ①	28. ⑤	29. ⑤	30. ④
31. ⑤	32. ①	33. ④	34. ②	35. ③
36. ①	37. ①	38. ④	39. ③	40. ②
41. ②	42. ⑤	43. ②	44. ③	45. ④
46. ④	47. ③	48. ④	49. ①	50. ①

· 어휘 / 쓰기

1.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정답 ②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고, 문맥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②이다. '자칫하면'은 '어쩌다가 조금 어긋나 잘못되면'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므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고, '넓히는 데에도'의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① ' 얌전 내지는 말이 없다는 ~'의 '내지는'은 '또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얌전'이라는 말과 뒤에 이어지는 서술 내용인 '없다는'이라는 말이 호응이 되지 않는다.

③ '오랜 만에'의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의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므로,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이라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부분이 어색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의 주어가 모호하여 어색하다. 문맥적 상황을 감안하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과대'는 명사이므로 '신앙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 또한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서술어 부분에서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달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 비음화, 설측음화, 구개음화의 사례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 설명한 ㉠~㉢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④이다. 우선 '읽는다'의 경우 [잉는다]로 발음되는데, '읽다[익따]'로 발음되는 '읽[익]'의 'ㄱ' 소리가 바로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ㅇ(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줄넘기'는 [줄럼끼]로 발음되는데, '넘'의 'ㄴ'이 바로 앞의 설측음 'ㄹ'을 만나 'ㄹ(설측음)'로 바뀌는 것이므로 설측음화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같이'의 경우 [가치]로 발음되는데, 'ㅌ'이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① ㉡의 예로 제시된 '발랄'의 경우 글자 그대로인 [발랄]로 발음되기 때문에 설측음화의 사례가 아니다.

② ㉢의 예로 제시된 '꽂히다'의 경우 [꼬치다]로 발음되는데, '꽂'의 'ㅈ'이 바로 뒤의 'ㅎ'을 만나 'ㅊ'이 되는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아니라 축약에 해당한다.

③ ㉠의 예로 제시된 '삶는다'의 경우 [삼는다]로 발음되는데, '삶'의 'ㄺ'이 'ㅁ'으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⑤ ㉡의 예로 제시된 '훌륭하다'의 경우 글자 그대로인 [훌륭하다]로 발음되기 때문에 설측음화의 사례가 아니다.

3. 음운 첨가 현상에 해당하는 사례 이해 정답 ⑤

⑤의 '박람회'는 [방남회] 혹은 [방남훼]로 발음된다. 즉, '박'의 'ㄱ'이 'ㅇ'으로, '람'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일 뿐 원래 없던 소리가 첨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운 첨가 현상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솜이불 → [솜:니불]　② 늑막염 → [능망념]
③ 식용유 → [식용뉴]　④ 한여름 → [한녀름]

4. 합성동사 및 합성형용사의 합성 방식 이해 정답 ④

④에서 ㉣의 예로 제시한 '앞세우다'는 '부사 + 용언 어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앞세우다'의 경우 '앞'이라는 명사와 '세우-'라는 용언(동사)의 어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동사이므로 ㉠의 예에 해당

한다. 한편 ㉠의 예로 제시한 '맑디맑다'의 경우, '맑-'이라는 동일한 형용사 어간 사이에 '디'를 개입시켜 일종의 반복합성어를 만든 예에 해당한다.

① ㉠ 겉늙다 : 겉[명사] + 늙-[용언(형용사) 어간] + -다
㉡ 검푸르다 : 검-[용언(형용사) 어간] + 푸르-[용언(형용사) 어간] + -다

② ㉡ 굶주리다 : 굶-[용언(동사) 어간] + 주리-[용언(동사) 어간] + -다
㉢ 뛰어나다 : 뛰어[용언(동사)의 활용형] + 나-[용언(동사) 어간] + -다

③ ㉢ 알아보다 : 알아[용언(동사)의 활용형] + 보-[용언(동사) 어간] + -다
㉣ 쉬이보다 : 쉬이[부사] + 보-[용언(동사) 어간] + -다

⑤ ㉤ 높디높다 : '높-'이라는 동일한 형용사 어간의 사이에 '디'를 개입시켜 만든 일종의 반복합성어
㉠ 낯설다 : 낯[명사] + 설-[용언(형용사) 어간] + -다

5. 문맥적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이해 **정답 ③**

<보기>에 제시된 네 개 문장의 어느 ( )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③의 '소유'이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 신랑감의 (⑤ 손가락)이/가 두툼하고 복스럽게 생겼네.
- 학생들이 방학을 (① 손)꼽아 기다린다.
- 이번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철수의 (④ 역량)에 달려 있다.

  * 역량(力量)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 농번기에는 너무 바빠서 일곱 살배기 (② 도움)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6. 관형어의 특성 및 쓰임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③**

관형어가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 것은 맞지만, 언제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보기>의 마지막 문장 '회사에서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에서 관형어를 생략하면 '회사에서도 일부를 져야 한다.'가 되어 문장이 어색해진다.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관형어 '새'는 '옷을'이라는 체언상당어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철수야, 새 옷 입었구나.'처럼, 관형어 '새'는 체언('옷')을 수식할 수도 있다.

② <보기>의 마지막 문장 '책임의 일부를'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허튼(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다른(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외딴(외따로 떨어져 있는)'은 모두 관형사가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보기>의 네 번째 문장 '해변 풍경을'을 통해 알 수 있다.

7. 외래어 표기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세칙(제3장) 일본어(제6절) 부분에,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보기>의 '큐우슈우'는 '큐슈'라고 표기해야 하므로 ②가 적절한 설명이다.

①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은 맞다. 그런데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라켙'은 옳은 표기가 아니고 '라켓'이 옳은 표기이다.

③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슬라보고로드'는 옳은 표기가 아니고 '슬라브고로드'가 옳은 표기이다.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아까시아'는 옳은 표기가 아니고 '아카시아'가 옳은 표기이다.

⑤ 국제 음성 기호 'f'는 'ㅍ'으로 적고 자음 앞에서는 '—'를 붙여야 하므로, '후라이팬'은 옳은 표기가 아니고 '프라이팬'이 옳은 표기이다.

8. 고쳐 쓰기 위한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 앞의 문장은 훈민정음의 제작 목적,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자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내용이다. 그리고 ㉡에 이어지는 문장은 훈민정음으로 기존의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의 앞뒤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지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결국'은 '일의 마무리에 이르러서. 또는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가게'라는 뜻이므로,

의 자리에 사용하는 것(②)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 들어 있는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하는'과 '데'를 띄어 써야 한다.

③ '제조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 뒤의 '책 가운데'라는 말을 감안할 때, '책 따위가 인쇄·발행되어 나오다'라는 뜻의 '간행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훈민정음으로 기존의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앞의 내용에 대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없다'를 '없기 때문이다'로 바꾸는 것이 낫다.

⑤ '쓰이다'는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사이다. 그런데 ㉤의 경우 피동사인 '쓰이다'에 또다시 '-어지다' 형태의 피동 표현이 중첩되어 사용된 말이므로 '쓰이도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문법 정보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태도 추론 정답 ①

㉠의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네가 합격하였다니 여간 반갑지 않구나.'는 '네가 합력하였다니 매우 반갑구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지고 말았어'의 '말다'는 '-고(야) 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지다')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인데, 일본팀이 축구를 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표현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③ ㉢은 차에 치인 강아지를 주어로 하여 피동문으로 표현한 문장이므로, 자동차보다는 차에 치인 강아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을 말한다. ㉣의 주체는 '김 과장'인데 듣는 사람(청자)이 '김 과장'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높이지 못하고 있다('김 과장은 출장을 떠나서 ~').

⑤ ㉤과 같이 사동문을 사용할 경우, 피사동주('아기')보다는 문장의 주어인 사동주('어머니')에 관한 정보 전달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10. 목차에 따른 글쓰기 의견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쓰고자 하는 글의 주요 내용은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도입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Ⅰ의 중심 내용은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의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Ⅰ에서 보유 정보가 해커들로부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방화벽 시스템은 전산망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Ⅰ에서 새삼스럽게 보유 정보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②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 및 정보에 대한 해커들의 불법 침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면, 방화벽 시스템의 필요성(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의견이다.

③ Ⅲ에서 다룰 중심 내용이 '방화벽 시스템의 종류'이므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을 종류별로 살피면서 각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④ <보기>의 '제목'으로 볼 때, 쓰고자 하는 글의 핵심 내용은 방화벽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다. 그리고 Ⅳ 이전까지의 목차를 보면, 글의 흐름이 '방화벽 시스템의 개념 → 방화벽 시스템의 필요성 → 방화벽 시스템의 종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Ⅳ의 중심 내용을 '방화벽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로 설정하면 글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방화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론을 별개의 장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언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⑤ Ⅴ의 '방화벽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방화벽 시스템의 종류(Ⅲ)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Ⅴ의 내용은 Ⅲ에서 동시에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술

[11~14] 지문 해제

인상주의 회화 이후 미술 분야에 나타난 경향

인상주의 회화의 특징을 소개한 다음, 이전과 달리 인상주의 회화 이후 서양 미술 분야에 나타난 경향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의 표현을 통해 색채를 해방시켰는데, 모네가 노년에

그런 수련 연작을 보면 대상으로부터 해방된 색채가 완연한 추상의 세계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경지는 회화의 질서가 자연의 질서로부터 독립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서양 미술은 인상주의 이후 자연의 질서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미술가들이 취미, 판단과 창의의 영역에서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모네에서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이들 미술가들의 작품에 이전 미술가들의 것과는 다른 특질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과 세잔의 그림에는 그 새 질서의 구축에 대한 전환기적 열망이 담겨 있다. 고갱은 열대의 원색을 바탕으로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본 세계의 색채를 구사했고, 세잔은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한 뒤 공간의 구조마저 의도적으로 어그러뜨렸다. 마티스는 제한 없는 색채가 그림의 형식과 주제를 통괄하는 야수파의 길을 열었고, 피카소는 대상과 공간을 극단적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입체파의 길을 열었다.

11.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지문의 네 번째 문단에서 '현대 예술의 주도자들은 사후 혹은 늘그막의 영광을 위해 길고 어두운 무명과 배척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후원자의 주문이나 요구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 주체적이고 세련된 조형과 미학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예술의 선구자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 당대의 후원자나 대중의 취향이나 감성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⑤가 지문과 일치한다.

① 네 번째 문단에서 루벤스와 같은 고전의 대가는 일찍이(당대에)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에 합당한 영예를 누리며 살았다고 했으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② 네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자신의 내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 주체적이고 세련된 조형과 미학을 추구'한 것은 '현대 예술의 주도자들'이다.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 전위 미술가 이전의 고전적 작가들은 대체로 '후원자의 주문이나 요구에 따라 작품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열대의 원색을 바탕으로 육안이 아니라 심안으로 본 세계의 색채를 구사'한 사람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색채에 있어서 심안의 세계를 중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피카소는 대상과 공간을 극단적으로 분해한 뒤 내키는 대로 재조립하는 입체파의 길을 열었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한 뒤 공간의 구조마저 의도적으로' 어그러뜨린 사람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이라고 설명했다.

12. 글의 전체 문맥에 따른 표현의 이해 **정답 ②**

은 모네가 루앙 대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한 말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할 때 너무 힘들어 밤새 악몽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대성당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푸른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꿈속의 상황과 관련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모네가 묘사한 꿈속의 풍경처럼, 고통과 환희의 이중주는 ~'이라고 표현했으므로, 글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여기서 '고통'은 '세상의 몰이해와 비판'과 관련이 있고, '환희'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발견한 '밝은 빛'과 관련이 있다.

① '세상의 몰이해와 비판'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밝은 빛을 위해 맞서 싸워야만 했던 당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③ '어두운 무명과 배척의 터널'은 현대 예술의 주도자들이 당대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④ '그림의 형식과 주제의 통괄'은 야수파인 마티스의 그림 특성에 대해 언급한 말로, '고삐 풀린 색채', 즉 제한이 없는 색채의 구사와 관련이 있다.

⑤ '새 질서를 위한 전환기적 열망'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과 세잔의 그림에 담긴 특징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13. 정보의 함의 내용 이해 및 특성 변별 **정답 ②**

잭슨 플록이 언급한 ㉡의 "화화는 회화 나름의 삶이 있다."라는 말은, 서양 미술이 '인상주의 이후에 이르러 자연의 질서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길을 택하게 된 것', 즉, 현대 예술의 주도자들이 '자신의 내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주체적이고 세련된 조형과 미학을 추구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①),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③), 야수파인 마티스(④), 입체파인 피카소(⑤) 등은 ㉡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화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인상주의 시대 혹은 그 이후의 화가들로서, 글쓴이는 이들이 고전 시대의 화가들과 작품 경향이나 특징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

전의 대가인 ②의 루벤스는 과 거리가 먼 화가이다.

14. 단어의 맞춤법 이해 정답 ①

'번번히'는 '번번하다'의 부사형으로서,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펀펀하고 번듯하게', '생김새가 음전하고 미끈하게', '물건 따위가 멀끔하여 보기도 괜찮고 제법 쓸 만하게', '지체가 제법 높게'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런데 ⓐ의 문맥적 상황은, 인상주의 이래 현대 예술의 개척자들은 모두 매번(항상) 세상의 몰이해와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번번히'는 문맥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매 때마다'라는 의미를 지닌 '번번이'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② ⓑ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일찍이'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③ ⓒ '늘그막'은 '늙어 가는 무렵'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④ ⓓ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으므로 '또렷이'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⑤ ⓔ '어그러뜨리다'는 '잘 맞물려 있는 물체를 틀어지게 하다', '기대가 빗나가거나 달라져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 '말이나 행동이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나게 하다', '지내는 사이를 나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어그러뜨렸다'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회

[15~18] 지문 해제

재난 상황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 수준에 관한 논란

재난 상황에서의 가격 폭리 논쟁에 대해 다룬 글이다. 2004년 여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뒤, 해당 지역의 재화와 용역 관련 가격이 폭등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고, 플로리다의 법무장관도 그러한 탐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서, 법무장관이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근대 이후 세상이 시장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재난 상황에서와 같은 가격의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에게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같은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고,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 폭리에 관한 논쟁은,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는 가격의 폭리를 취해도 되는가, 아니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15.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의 근거 파악 정답 ④

가격폭리처벌법은 허리케인 같은 자연 재해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공급자)들이 그 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은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나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는 '미덕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문단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우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근대 이후에 세상이 시장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격폭리처벌법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자유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16. 주장의 취지 이해 및 견해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보기>에 언급된 '장사꾼'은 자연 재해 상황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이전보다 매우 높게 책정하여 폭

리를 취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즉, 지문 두 번째 문단의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 혹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보기>는 그러한 장사꾼을 악마로 만들어 비난한다고 해서 재해 지역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에 드러난 경제학자들(①)의 논리, 즉 시장 중심의 사회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재해 상황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와 관련이 깊다.

②, ⑤ 구매자(재해 지역인 플로리다 주민들)의 경우는 장사꾼, 즉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들이 가격을 이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그리고 이들 중의 일부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라는 입장이므로 <보기>의 주장과 견해가 다르다.

④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자연 재해 상황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7. 문맥적 의미의 이해 및 속담의 적용 정답 ②

의 '어쩔 수 없이'는,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전력이 부족하여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평소에 2달러 하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사야만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얼음주머니를 사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②의 '울며 겨자 먹기'이다. 이는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①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

④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혹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18. 정보의 핵심 의미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③

㉡은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 폭리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선, 앞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즉, 재난 상황에서조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반면 뒤의 '가격 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만 하는가?'는, 자연 재해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구매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자들의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플로리다 주민들, 주 법무장관)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해치면서까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렇게 볼 때, ㉡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원리(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시장의 자율성 / 가격폭리처벌법 같은 가격 규제)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말(③)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④ 재난 상황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해당할 뿐,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문제나 공급자들의 사기 진작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지문의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는,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바가지요금을 책정한 판매자들(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⑤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다른 가격들을 공정 가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는 인위적 가격 규제 측의 입장만을 전제하는 것이다.

소설

[19~23] 작품 해제

이청준, 「서편제」

이 소설은 복합적 액자 소설의 구성을 바탕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남매의 가슴 아픈 한,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소리의 예술혼을 그려 낸

작품이다.

어느 날 소릿재 주막에 소리를 잘한다는 소리꾼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내가 찾아온다. 소리꾼 여인은 이미 죽은 소리꾼 아비에 관한 사연을 털어놓고, 사내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소년이 어렸을 때, 떠돌아다니던 소리꾼이 어머니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소년은 소리꾼인 의붓아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뜨거운 햇덩이를 떠올린다. 1년 후 소년의 어미는 소리꾼의 딸을 낳고 죽는데, 의붓아비가 어미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소년의 증오감이 싹튼다. 소년은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붓아비와 그 소리를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소년 역시 의붓아비의 소리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살의가 무력해져 감을 느낀다. 소년은 의붓아비의 소리로 인해 그를 용서하게 될까 봐 두려워 의붓아비의 곁을 떠난다.

소릿재 주막에 찾아왔던 사내는 소리꾼 여인과 대면하여, 과거에 아비가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 그 여자가 그러한 아비를 용서하여 한이 깊었을 것이라는 얘기 등을 나무며 서로 공감한다. 그 여자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제 아비를 용서했기에 그것이 소리를 위한 한이 되어 진정한 소리꾼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와 소리꾼 여인의 대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존재(남매 사이)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 주제 : 억누를 수 없는 한의 표출과 예술적 승화

19. 소설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나) 부분은 사내와 여인의 대화 위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경우 두 번째 문장 '그는 또다시 그 어릴 적의 ~'에서 드러나듯이, 사내의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간결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 과정에서 소년이 의붓아비(회상 장면 속의 '옛날 사내')에게 지녔던 반감, 원한, 살의 등의 심리가 제시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③ (가)에서 사내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릴 적의 이글거리는 태양볕'으로 상징되는 '아비 아닌 아비(의붓아비)'의 소리를 떠올린다. 그 '이글거리는 태양볕'이 (가)의 후반부에서 '이글이글 떠오르는 뜨거운 햇덩이'와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의 햇덩이'로 드러나면서 그 내포적 의미망이 넓어지고 있다.

④ (나)에는 사내와 여인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양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문답을 위주로 하여 사건의 경과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할 때, '사내'와 '여인'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서로 남매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과 관련된 호칭이 (가)에서는 '옛날 사내(사내가 회상하는 의붓아비)', '계집아이(사내가 회상하는 의붓동생)', '소년(사내가 회상하는 어릴 적의 자신)'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여인'은 '사내'가 자신의 의붓오빠임을 알면서도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인명 대신에 일반적인 통칭을 사용하여 서로 남매인 '사내'와 '여인'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20. 인물과 중심 소재 사이의 관계 이해 정답 ③

ⓑ는 사내가 여인(의붓동생)의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어릴 적 의붓아비(아비 아닌 아비)의 소리이다. 즉, 사내는 듣고 있는 여인(의붓동생)의 소리가 '어릴 적의 이글거리는 태양볕'을 떠오르게 하면서 '옛날 사내(의붓아비)의 소리'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상 속의 사내(의붓아비)는 철도 들지 않은 계집아이(의붓동생-현재의 여인)와 소년(현재의 사내)에게 소리를 시키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어미를 죽게 한 것이 바로 사내의 소리라고 여겨, 언젠가는 그 사내와 소리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사내의 하염없고 유장한 노랫가락 소리를 들으면 살기가 불현듯 되살아나곤 했다. 그리고 소년은 사내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를 타고 이글이글 떠오르는 뜨거운 햇덩이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사내에 대한 살의가 더욱 치솟곤 했다.

이렇게 볼 때, 사내(ⓐ)는 과거 소년 시절에 아비 아닌 아비(의붓아비)가 되어 버린 옛날 사내의 소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소리로 인해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고통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된 사내는 여인(의붓동생)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릴 적의 이글거리는 태양볕'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 옛날 사내의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비인 옛날 사내의 소리(ⓑ)는 ⓐ(사내)가 고통스러워했으면서도 결코 떠날 수 없는 세계라는 ③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내는 어린 소년 시절에 의붓아비의 소리 때문에 어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살의가 치솟곤 했으므로, 오히려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

②, ⑤ 의붓아비의 소리를 가족이 지닌 문제점의 해소나 잠재된 정신적 상처의 치유와 연결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

④ 사내가 의붓아비의 소리를 인정하면서 그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내는 어린 시절에 의붓아비의 소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향하는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21. 작품 속 세부 요소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은 사내가 소년 시절에 자신의 의붓아비('옛날 사내')가 목청을 돋워 소리를 할 때의 느낌이나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 즉 소년('녀석')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의 햇덩이를 떠올리며 살의가 치솟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었음을 의미(②)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① ㉠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계집아이 쪽은 신통하게도 소리를 잘 흉내 내었고, 목청도 제법 들을 만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 좋은 소리를 가꾸자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슴에다 말 못할 한을 심어 줘야 한다던가요?"에서 드러나듯이, ㉢은 소리와 한의 관계에 대한 항간(일반 사람들)의 미학적 인식을 물음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통하는 것으로, 작자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의 앞에서 '사내'는 여자가 제 아비(눈을 멀게 한 것)를 용서하여 다행이고, 그 용서가 소리를 위한 한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인'이 '사내'에게 "~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해지시는가 보군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인'은 '사내'가 자신의 의붓오빠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 다음 문장의 '여인은 그제야 사내가 안심이 된다는 듯'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에는 '여인'이 '사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⑤ ㉤에서 '여인'은 '사내'에게 그 여자가 장님이 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누이를 찾아 헤매 다닐 참이냐고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여인'은 자신을 찾아 헤매 다닌 의붓오빠인 '사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한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 자료의 적용을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A]에서 '어린 사내 녀석'이 '사내의 소리'를 증오하는 것은, 그 소리가 자신의 어미를 죽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사내 녀석'은 '그 나이 먹은 사내'와 '사내의 소리'를 죽이고 싶어 한 것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할 때, '어린 사내 녀석'은 그 당시에 소리가 삶의 실체를 배반하는 폭력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사내 녀석'이 '사내의 소리'를 증오하는 것을 소리의 미학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했던 '어린 사내 녀석'이 성인이 된 후인 (나)에서는 용서를 통한 한의 승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와 삶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요소를 엿볼 수 있다.

① [A]에서 '어린 사내 녀석'이 '아비'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소리가 삶의 실체를 배반하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기>와 관련지으면, 이는 말과 삶이 분리된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B]의 앞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아비가 자식의 눈을 멀게 한 이유를 한을 심어 주기 위한 측면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B]에서 '사내'는 사람의 한이라는 것은 심어 주려 해서 심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후 "노인은 아마 그 여자의 소리보다 자식년이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두고 싶은 생각이 앞섰을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내'는 '그 여자'가 장님이 된 사정을 다른 데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과거에 지녔던 의붓아비와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했음이 드러난다.

④ 사내는 [B]에서, 여자가 제 아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원한이지 소리를 위한 한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여자가 제 아비를 용서했기 때문에 원한이 아니라 소리를 위한 한이 될 수 있었다

는 의미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사내'는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A]에서 드러나는 '어린 사내 녀석'이 '사내(의붓아비)'와 '사내의 소리'에 대해 느끼는 갈등 양상, [B]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 대한 '여자'의 용서, 소리를 위한 한으로의 승화 관련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3. 관련 작품과의 연계를 통한 창작 의도 추론 정답 ⑤

작가는 「서편제」에서 용서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즉 소리와 삶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선학동 나그네」에서 '여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삶의 이면에 대한 통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학동 나그네」의 창작 의도를 추론한 내용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①, ③ 두 작품 모두 전통 사회의 문제점 비판이나 인간관계의 비정함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다.

② <보기>의 "아배의 소리는 그러니께 그 시절에 늘 물 위를 날아오른 학과 함께 노닐었답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아배의 소리'에 대한 반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보기>에서 주인공은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서술자는 작품의 바깥에서 그 '여자'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

술

[24~27] 지문 해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

선풍기의 핵심인 날개가 없어도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인데, 공기의 이동은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일어난다. 일반적인 선풍기의 경우, 날개가 기울어진 각도를 크게 하면 더욱 센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바람이 선풍기의 테두리 쪽으로 나오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비밀은 바로 이 테두리에 있다. 테두리 안의 공간은 텅 비어 있는데, 이곳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아래쪽 모터에서 빨아들인 공기가 테두리 안을 돌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테두리의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방식이다. 테두리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주변의 공기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다시 강한 바람을 밖으로 내뿜는 것이다. 이때 밖으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모터에서 빨아들인 공기보다 15배나 강하다고 한다.

24. 글의 중심 내용에 따른 제목 생성 정답 ③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데 선풍기의 핵심인 날개가 없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지문은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이러한 지문의 중심 화제를 고려할 때, 글의 제목으로는 ③의 '날개 없는 선풍기의 비밀'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첫 번째 문단에서 '불볕더위의 필수품'으로 부채와 선풍기, 에어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글을 시작하면서 화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언급한 말일 뿐이다. 지문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②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글의 중심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이 아니다.

25. 정보의 이해를 통한 추론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의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선풍기의 경우 날개가 기울어져야 공기와 맞닿는 면이 커져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의 날개 각도를 공기와 맞닿는 면이 더 크게 하면 더욱 센 바람이 나온다고 언급한 후, ㉠에서는 그렇게 하면 바람이 선풍기의 테두리 쪽으로 나오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선풍기의 날개가 공기와 맞닿는 면이 크면 바람도 많이 일으킬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선풍기의 테두리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풍기의 날개는 바람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바람을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는, 선풍기 날개의 각도에 따른 바람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선풍기 날개를 공기와의 마찰 면이 가장 넓게 만들면, 바람이 선풍기의 테두리 쪽으로 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②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를 응용하여 선풍기의 날개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 그런 부채의 원리와 다른, 선풍기의 각도에 따른 바람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③ 선풍기의 날개는 힘을 가장 덜 들이는 쪽으로 바뀌어 온 것이 아니라, 바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고 추론해야 한다.

⑤ ㉠의 앞에서 자를 네모 면으로 휘두를 때 공기와의 마찰 면이 커진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선풍기의 날개가 네모꼴이어야 바람을 잘 일으킨다는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26. 정보의 이유에 대응하는 어구의 적용 정답 ②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와 그 효율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에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의 '그런데 선풍기의 핵심인 날개가 없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을 감안할 때,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처럼 언급한 이유는 선풍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가 없이도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선풍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탄생한 결과이므로, ㉡의 이유에 대한 답과 관련된 핵심 어구로는 ②의 '고정 관념 깨뜨리기'가 가장 적절하다.

27. 접미사 '-질'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의 '부채질'에 결합되어 있는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보기>의 단어에 결합되어 있는 '-질' 중 ⓐ의 '-질'과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은 '삽질, 걸레질, 가위질'에 결합되어 있는 '-질'이므로 ①이 답이다.

* '목수질'의 '-질' :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손가락질'의 '-질'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 외 접미사 '-질'의 의미 기능>

*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계집질, 노름질, 서방질, 싸움질, 자랑질
* (물질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물질, 불질, 풀질, 흙질
* (몇몇 의성어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딸꾹질, 뚝딱질, 수군덕질

[28~32] 작품 해제

(가) 유치환, 「생명의 서 일장(一章)」

이 시는 삶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생명의 본질을 깨우칠 수 없음을 알고서 '병든 나무'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생명 본연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품고 삶의 허무와 회의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좌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화자는 허무감에 빠진 현실적 자아를 버려야만 본질적 자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떠나게 된다.

그 곳은 '영겁의 허적(虛寂)'과 관련된 '아라ㅡ의 신'만이 존재하는 절대적 공간이고, 일체가 사라져 버린 죽음의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역설적 공간으로서의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주제 : 생명(삶)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결연한 의지

(나)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序詩)」

이 시는 존재의 참다운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나 오히려 미궁에 빠지고 마는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 나타나는 '너'는 '꽃'으로,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에 접근하여 본질을 규명하려는 인식의 주체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은 언제나 완전한 인식의 가능성 저편에 있으며, 마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와 같다.

우리는 사물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에 접근하여 이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은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접근할

수가 없다. 어설프게 본질이라고 규명하려고 해도, 실은 '위험한 짐승'처럼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거나 오히려 참된 본질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시라기보다는 존재 및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 시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사물('꽃')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 추구

(다) 황동규,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

이 시는 자연의 본성을 통해 삶의 편안함이 넘치는 밝고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은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인다. 화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눈 감고 혼자 초봄 저녁 강'을 건너면서 '뼈 시린 따스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자는 '발가락들이 전부 살아'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 주제 :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의 본성을 통해 찾으려 하는 밝고 조화로운 세계

28. 작품들 간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⑤

(가)는 극한 상황에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고, (나)는 존재의 본질이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리고 (다)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의 본성을 통해 밝고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 (다)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내적 고뇌의 상황에서 그 극복을 위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명사형으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낸 것은 (다)의 ' 이 길의 편안함.'이다.

② (가)의 '아라비아의 사막', (다)의 '지리산 중턱'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③ (다)에서 '날아다닌다', '싱싱하다', '벗어놓고', '뼈 시린', '속삭이듯'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계절과 관련된 시어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다)로, '겨울 지난 거미줄', '눈과 바람', '초봄 저녁 강', '뼈 시린 따스로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29. 시구가 지닌 함축적 ·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 ⑤

(가)의 화자는 극한적인 고통과 고독의 공간으로 가자는 내적 결의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 삶에서 의미나 가치,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했을 때, 그 현실 공간을 떠나 극한적인 절망 속으로 가자는 것이다. 즉, '열렬한 고독'과 같은 더욱 큰 시련으로 영육(靈肉)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생명의 본질 추구가 가능하다는 비장한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한밤내' 울고 있다. 이러한 '나의 울음'은 '돌개바람이 되어'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울음'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의 '열렬한 고독'과 (나)의 '나의 울음'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⑤가 가장 적절하다.

30. 다른 작품과의 연계를 통한 이해 및 감상 정답 ④

(나)의 화자는 존재의 참다운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나 오히려 미궁에 빠지고 만다. 즉, 화자는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본질에 접근하여 그것을 규명하려 하지만, 사물의 본질은 언제나 완전한 인식의 가능성 저편에 있어서 마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와 같은 속성을 지닌다.

<보기>에서 화자는 '시를 잉태한 언어'는 '설레이는 가지 끝'에서 '민감한 촉수'를 '눈 없고 귀 없는 무변(無邊)'으로 뻗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무변(無邊)'은 '끝이 없음. 또는 그런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보기>는 대상(사물)의 본질을 향한 화자의 열망이나 노력과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다. 즉, (가)의 '얼굴을 가리운'과 <보기>의 '무변'은 사물의 본질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얼굴을 가리운'은, <보기>의 '무변'이 지닌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감상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나)에서는 계절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시어나 시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나)에 등장하는 '꽃'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② (나)의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이미지라면, <보기>의 (든든한) '대지'는 안정의 이미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속성이 다르다.

③ (나)의 '한밤내 운다'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노력이므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설레이는'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시어가 아니라, '가지' 혹은 '시를 잉태한 언어'의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⑤ <보기>에서 '시를 잉태한 언어'에 대해 '설레이며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자료를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에서, 황동규의 시 세계는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밝고 건강한 세계로 나아가려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연의 본성을 통해 삶의 희열이 넘치는 밝고 조화로운 세계를 노래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A]에서 화자는 '물가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 놓고', '전쟁 예보와 비누로 더러워진 옷도 벗어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눈 감고' 건너고 있다. 이는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떨쳐 버린 채 강을 건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에서 강을 건너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려는 결심과 실천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러한 실천 과정에서 화자는 따사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A]에서 강을 건너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현실 세계에 당당하게 대응하려는 태도로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32. 시행에 담긴 의미 및 태도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의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가)에서 ㉠은 화자가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화자는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아라비아의 사막'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에서 ㉠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극한적 상황이지,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의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에서 화자의 결연한 의지와 내면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의 '녹이 슬었다'에서 금속성 물질의 속성을 활용하여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음 상황에서 '발화(發火)의 말뭉치들'로 이어지는데, '겨울 지난 거미줄들'과 '마른 풀들'이 날아다니는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내면에 근거한 언어가 무력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

[33~36] 지문 해제

언어의 소멸과 언어의 교체 이유 및 그에 대한 관점

언어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언어의 명멸 상황을 보면, 소수 민족의 언어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 언어들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소수 언어로 언어 교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득한 옛날에는 살인.질병.파문 등이 언어 상실의 주된 요인이었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언어 상실의 요인은 자발적인 경향으로 바뀌어 왔다. 우월한 외부 세력과 접촉이 되면 세계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위를 고려하여, 혹은 자식들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월한 세계의 상황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2개 국어를 쓰도록 독려하거나 용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에 해당한다.

언어 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원래의 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느낌, 중심부나 자국의 중앙 권력에 의한 패배감, 조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새로운 언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린 세대들은 새로운 정체성, 즉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

언어 교체의 대안은 영구적인 2개 국어의 사용이다. 외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자기들끼리는 원래의 토착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소수 언어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아닌 한 그것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

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는 언어 다양성을 반드시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각 문화는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화하며, 이것은 상실이라기보다 사회적 진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언어의 대량 멸종은 인류가 새로운 지구촌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다.

33.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우월한 외부 세력과 접촉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위나 출세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다음, 흔히 2개 국어를 쓰도록 독려하거나 용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후세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토착어를 버리고 주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④는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세 번째 문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인류는 언어 다양성을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각 문화는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화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상실이라기보다 사회적 진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후, 유럽의 다수 언어들도 소수 언어였던 인도유럽어로 언어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언어 교체의 대안으로 영구적인 2개 국어의 사용을 언급했다. 즉, 외부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국제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한편, 자기들끼리는 토착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생활에서 소수 언어와 주류 언어를 분리하여 2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⑤ 두 번째 문단에서, 자발적으로 원래의 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느낌, 중심부나 중앙 권력에 의한 패배감, 조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게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34.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②

ⓑ의 '안위(安危)'는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②에 제시된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은 '위안(慰安)'이므로, ⓑ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다.

35. 논지를 통한 구체적 정보의 이해와 종합 정답 ③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의 전반부에서, 각 문화는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화하며, 이것은 상실이라기보다 사회적 진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문단의 후반부에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예견된 결론으로 보는 언어의 대량 멸종은 인류가 '새로운 지구촌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지구촌 사회'는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모든 외부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국제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사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구촌 사회'는 '사람들이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③)'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④ 글쓴이는 각 문화가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진화로 보는 입장이므로 거리가 멀다.

② 언어의 소멸과 교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글이므로, 잃어버린 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멸종 위기의 언어를 보존하려는 외국 언어학자들의 열의에 대해 언급한 다음, 언어의 대량 멸종은 인류가 새로운 지구촌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글쓴이의 관점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①

<보기>에 제기된 문제점은, 정부가 대중 매체에서 중앙 방언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방언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 언어 교체의 대안으로 언급한 영구적인 2개 국어의 사용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부인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국제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한편, 자기들끼리는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앙 방언이 통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 사람들끼리의 지역 방언 사용을 권장하면 그것들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글쓴이가 국제적인 주류 언어와 토착어의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기>에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관련이 없다.

③, ④, ⑤ 글쓴이는 토착어와 같은 소수 민족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새로운 지구촌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 방언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방언을 교육하는 것, 지역 방언을 시대에 맞게 개량하는 것,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하는 것 등은 글쓴이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시가 + 수필

[37~41] 작품 해제

(가) 정철, 「관동별곡」

송강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 팔경 등의 빼어난 경치를 두루 유람한 후 그 도정(道程)과 산수, 풍경, 고사(故事), 풍속 및 자신의 소감 등을 읊은 기행 가사이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웅장하고 명쾌하며, 여정에 따른 내용들이 화려체의 문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구법의 묘미를 살리면서 감탄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생략법을 알맞게 구사하는 등 능란한 수법은 송강의 빼어난 문장의 경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전편(全篇)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된 감격과 임지로 부임하는 상황을 드러낸 서곡(序曲)이고, 제2단은 내금강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다. 제3단은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 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4단은 자신의 풍류를 꿈속에서 신선이 되어 달빛 아래 노니는 데 비유한 결구(結句)이다.

- 주제 : 관동 지방의 절경 및 선정(善政) 다짐과 풍류

(나)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고산 윤선도가 전라도 해남 금쇄동에 은거할 무렵에 지은 총 6수의 연시조이다. 작자는 수(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아 서시(序詩)에 해당하는 첫째 수 다음부터 각각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自然愛)와 관조의 자세를 드러내었다.

제시된 <제2수>에서는 깨끗하면서도 영원한 속성을 지닌 물에 대해 예찬하고 있으며, <제6수>에서는 광명하면서도 과묵한 속성을 지닌 달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 주제 :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 지닌 속성 예찬 및 그것들에 대한 친화적 자세

(다) 소식(蘇軾), 「희우정기(喜雨亭記)」

소식은 진희량이 태수로 있던 부풍 고을에 봉상부 판관으로 부임한 뒤 정자를 지었는데, 이 글은 그 정자의 이름을 '희우정(喜雨亭)'이라고 짓게 된 내력을 적은 글이다. 이름의 의미 그대로 이 정자는 기다리던 비가 흡족하게 와서 모두가 즐거워하던 때에 지어진 것으로, 비가 때를 맞추어 온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지방 관리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공덕이 있으면 그것을 상관이나 하늘의 덕택으로 돌리는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주제 : 정자의 이름을 '희우(喜雨)'로 짓게 된 계기 및 백성을 사랑하고 상관의 덕택을 헤아리는 자세

37. 작품들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①

(가)의 화자는 총석정에서 삼일포로 이동하며 사선봉의 장관을 접하고 네 신선에 대한 추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대에서 일출 광경을 대하면서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흐릴까 염려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죽서루에서 객수를 느낀 후에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망양정에서 월출을 접하면서 백성들에서 좋은 정치를 베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이, (가)의 화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빼어난 자연 경관을 대하면서 그에 따른 정서 및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제2수>에서 깨끗하면서도 그치는 일이 없이 영원한 것은 물뿐이라고 예찬하며 동경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6수>에서는 밤중에 빛이 밝으면서도 과묵한 속성을 지닌 달을 예찬하며 동경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다)의 경우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의 경우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의 인간 세태를 풍자하는 글로 보기도 어렵다.

④ (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설명일 뿐이다.

⑤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일 뿐이다.

38. 자료의 적용을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는 (가)에 구현된 송강 정철의 신선 의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가)를 이해.감상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가)의 '진쥬관(眞珠館) 듁셔루(竹西樓) 오십쳔(五十川) ᄂᆞ린 믈이 / /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의 다히고져.' 부분의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의) 오십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아름다운 경치]를 동해로 담아 가니,
차라리 (그 강물을 임금님이 계신)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볼 때, '듁셔루(竹西樓)'에서 엿볼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충직한 신하의 모습,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작자가 신선 의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알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②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션(醉仙)을 빗기 시러,'는 '명사십리 (밟을 때마다 소리를 내는 모래가 십 리에 깔려 있는) 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라는 뜻이다. 여기서 화자의 동해 여정은 작자의 자의식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일 수도 있으며, 화자가 자신을 '취션(醉仙)'으로 표현한 데에서 작자의 신선 의식을 엿볼 수 있다.

③ '단셔(丹書)ᄂᆞᆫ 완연(宛然)ᄒᆞ듸 ᄉᆞ션(四仙)은 어듸 가니,'는 '(사선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붉은 글씨는 (바위에) 뚜렷한데,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 등) 네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션(詩仙)은 어듸 가고 히타(咳唾)만 나맛ᄂᆞ니'는 '시선(詩仙)인 이백은 어디 가고 그의 시만이 남았느냐?'라는 뜻이다. 이렇게 화자가 사선(四仙)과 시선(詩仙)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것은 작자가 신선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가)의 마지막 부분 '션산(仙山) 동히(東海)예 갈 길히 머도 멀샤.'는 '선산(仙山)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라는 뜻으로, 이로 보아 작자는 신선 세계와 현실 세계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9. 두 작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비교 및 대비 정답 ③

[A]와 [B] 중에서 대조의 표현 방식을 두드러지게 활용하여 중심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B]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B]의 '구룸 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를 자로 ᄒᆞᆫ다(구름 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 ᄇᆞ롬 소릐 묽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바람 소리 맑다고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에서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대구의 방식도 활용).

① [A]의 '션사(仙槎)를 ~ 향(向)ᄒᆞ살가, / 션인(仙人)을 ~ 머므살가.'와, [B]의 '구룸 빗치 조타 ᄒᆞ나 ~ / ᄇᆞ롬 소릐 묽다 ᄒᆞ나 ~'에서 대구의 표현 방식이 드러난다.

② [A]의 경우 관원의 여행길은 한계가 있지만, 풍경이 싫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다는 내용에서, [B]의 경우 깨끗하면서도 그치는 일이 없는 물의 속성을 예찬하며 동경하는 내용에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④ 억양법은 깎아내린 후에 추어올리거나, 추어올린 후에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기복을 두어 표현 효과를 노리는 수사법이다. [B]의 '구름 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 바람 소리 맑다고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에서, 추어올린 후에 깎아내리는 방식의 억양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의 화자는 한계가 있는 관원으로서의 여행길과 싫지 않은 풍경 사이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B]의 화자는 깨끗하면서도 그치는 일이 없는 것은 물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내면적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40. 구체적 상황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감상 정답 ②

글쓴이는 (다)의 처음 부분에서, 정자를 비[雨]로써 이름함은 기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C]의 노래에 '한 번 비가 사흘이나 온 것은 그 누구의 덕일런가? ~ 태공은 아득하고 아득하여 이름할 수 없으니, 내 이로써 정자의 이름을 희우(喜雨)라 하노라.'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다)의 글쓴이(화자)는 비가 사흘 동안

내렸던 일을 두고서, '희우'를 그 일에 대한 적합한 표현으로 여겨 정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정자를 짓게 했던 일의 전말이 아니라, 정자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정자 이름의 유래)가 드러나 있다.

③ 글쓴이(화자)는 비가 사흘 동안 내린 일에 대해 특정한 누구의 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연쇄적인 방식이 드러나 있는데, 백성들은 태수의 덕분으로, 태수는 천자의 덕분으로, 천자는 조물주의 덕분으로, 조물주는 태공의 덕분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하늘이 구슬을 뿌린들 그것으로 곡식을 삼을 수 없네.'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보화가 어떤 경우에도 무용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41. 화자와의 정서적 관계의 유사성 이해 정답 ②

(나)의 '너'는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며) 밤중에 광명(光明)한 '달'이다. 화자는 <제2수>의 종장에서 '너(달)'의 과묵한 속성을 예찬하며 나의 벗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가)의 '아마도 ㉡녘구름 근처의 머물세라.'는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라는 의미, 즉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 염려스럽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 '녘구름'은 (가)의 화자가 기피하는 대상이므로 거리가 멀다.

① ㉠의 '빅구(白鷗)'는 '갈매기'인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라고 노래하면서 친구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③ ㉢의 '빅셜(白雪)'은 파도의 포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오월의 아득한 하늘에 백설(파도의 포말)은 무슨 일인가?'라고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④ ㉣의 '빅년화(白蓮花)'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 하나를 어느 누가 보내 주시었는가?'라고 노래하면서 반가운 선물로 여기고 있다.

⑤ ㉤의 '큰 비'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다.

학

[42~45] 지문 해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입장 및 그 식품의 용도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입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유전자 변형 식품의 중요한 용도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는 우선, 유전자 식품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극소수의 진정한 수렵 채집인들을 제외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켜 자연에 없던 새로운 종을 만들어 왔다. 생명공학은 한 번에 유전자 하나씩, 식물 종에 새로운 유전 물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출생률이 높고 한정된 경작지에 과도한 생산 압력이 가해지면서 살충제와 제초제가 과다 사용되어 그런 농약을 뿌리는 농민과 환경 모두가 황폐해지고 있는 저개발국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2.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유전자 식품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⑤의 '유전자 변형 식물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과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전자 변형 식품의 논쟁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은 과학적 입장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입장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유전자 변형은 인류가 신의 세계를 침범하는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오늘날의 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교배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④ 세 번째 문단의 ‘ 수만 사하이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쟁이 식량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나라들의 놀음일 뿐이라고 말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43. 대조적 의미 관계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②

㉠의 바로 앞에서,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식물 교배와 달리, 생명 공학은 한 번에 유전자 하나씩, 식물 종에 새로운 유전 물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유전적 측면에서 볼 때, 생명 공학 기술은 기존의 농업 방식에 비해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의 ‘쇠망치 : 핀셋’의 대조적 의미는 ‘세밀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무딘 것) : 세밀하고 정확한 것(예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②의 ‘주걱 : 젓가락’이다.

① ‘동쪽’과 ‘서쪽’은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관계이다.

③ ‘텔레비전’이 ‘가전제품’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④ ‘항해’는 목적에 해당하고 ‘나침반’은 ‘항해’를 위해 필요한 도구에 해당한다.

⑤ ‘금성’과 ‘샛별’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관계이다.

44. 특정 문장에 담긴 입장의 다각적 이해 정답 ③

글쓴이는 ㉡에서 토마토를 만드는 데에 쓰인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일의 성숙 시기를 늦추는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상상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아, ㉡은 결국 유전자 변형 기술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용성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③의 ‘유전자 변형 토마토는 수익을 향상시키지만 환경 파괴를 가속화한다.’라는 내용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므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45.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 기능 이해 정답 ④

‘죽음의 선고’에 쓰인 ‘의’는 관형격 조사인데, 여기서의 ‘의’는 앞 체언(‘죽음’)이 뒤 체언(‘선고’)이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즉, ‘죽음을 선고하다’를 관형격 조사 ‘의’를 활용하여 ‘죽음의 선고’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가 이러한 의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④의 ‘질서의 확립(← 질서를 확립하다)’이다.

① ‘노래의 날개’에서 ‘의’는 앞 체언(‘노래’)이 뒤 체언(‘날개’)에 대하여 비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② ‘겨레의 염원’에서 ‘의’는 앞 체언(‘겨레’)이 뒤 체언(‘염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기능(← ‘겨레가 염원하다’)을 한다.

③ ‘다섯 자루의 연필’에서 ‘의’는 앞 체언(‘다섯 자루’)이 뒤 체언(‘연필’)의 수량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⑤ ‘한국의 명승지’에서 ‘의’는 뒤 체언(‘명승지’)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한국’)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소설

[46~50] 작품 해제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역사 소설.군담 소설.전쟁 소설.영웅 소설의 범주에 속하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박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걸 소설(女傑小說)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이본(異本)들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추녀 ‘박씨’가 흉한 탈(허물)을 벗는 이야기로 된 전반부와, 병자호란을 당하여 영웅이 활약하는 이야기로 된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병자호란은 조선의 치욕적 사건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으며 민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야인(野人)이라고 경멸하던 만주족에게 패배한 만큼 민중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소설은 현실적인 패배와 고통을 상상 속에서 복수하려는 민중의 심리적 욕구가 표출된 작품이다.

또한, 이 소설은 여성인 ‘박씨’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그녀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로 설정된 반면, 남성인 ‘시백’은 비교적 평범한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삼종지도(三從之道 :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의 윤리에 억압되어 살아야 했던 봉건적 가족 제도에서 정신적으로 해방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비범한 능력을 갖추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변신(變身)'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변신 모티프는 작품의 구성상 사건 전개의 전환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박씨'의 변신은 비범한 부덕(婦德)과 부공(婦功)은 물론, 신묘한 도술로써 여성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계기가 된다.

-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비범한 재주 /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46. 작품의 개괄적 특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④

'공'이 '박씨'에게 나무를 심은 까닭과 집의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한 이유를 묻자, '박씨'는 다음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무로 방비를 할 수 있으며, 하늘의 조화를 더 이상 누설할 수는 없으니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과 '박씨'의 대화 전개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변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공'이 아들과 '박씨'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자, '박씨'는 남편의 과거 급제와 출세에 대해 언급한 후에 아무 때라도 화목하게 지낼 때가 있을 것이라는 투로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씨'가 '공'에게 이제 액운이 끝났기에 누추한 허물을 벗었다고 말하면서 옥함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공'이 옥함을 만들어 들여보내고 아들 '시백'을 부른 후에 들어가서 '박씨'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박씨'의 남편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하게 될 것과, '박씨'와 남편 '시백'의 관계가 화목해질 것이 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지문에 제시된 장면은 몇몇 특정 상황에 대한 서술과 인물들 간의 대화 위주로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앞뒤의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긴밀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과 '박씨'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다. 따라서 격의 없는 대화로 인물들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박씨'는 '공'에게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서도, 하늘의 조화를 누설할 수 없으니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어느 정도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③ 제시된 장면에서 중심인물은 '박씨'와 '공'이라고 할 수 있고, 주변 인물은 '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화'에 의해 '박씨'와 '공'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⑤ 인물의 심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물의 언행이 표리부동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구체적 상황을 통한 등장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 ③

몸종인 '계화'는 '박씨'가 시키는 일을 충직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화'가 '박씨'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계화'는 '박씨'가 나무를 심어 물을 주며 기르라고 한 것이나, '박씨'가 허물을 벗은 후에 옥함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의중을 모르는 상황이다.

①, ② '공'이 탄식하며 한 말인 "너는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의 며느리가 되기에 아깝구나. 나의 팔자가 기박하여 도리를 모르는 자식이 아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지 않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를 통해 볼 때, '시백'은 '박씨'의 추한 외모 때문에 아내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박씨'의 남편인 '시백'은 외모를 기준으로 여성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은 아들 내외가 화락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고 있으므로, '공'은 부부간의 화락과 화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공'은 며느리인 '박씨'의 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초당의 후원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본 후에 "이 사람은 바로 신선이로다. 여자로서 이 같은 영웅의 큰 지략을 품었으니 신과 같이 밝은 재주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감탄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공'은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⑤ '박씨'는 초당의 후원에 나무를 심어 급한 일에 대비하려 하고, 술법을 부려 변화하는 신기한 행적을 보

인다. 이러한 '박씨'는 "　다만 제가 원하는 바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님께 영화를 보시게 하고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며 나라를 충성으로 도와서,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남편인 '시백'이 입신양명하여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공헌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보아 '박씨'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모두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8. 자료의 적용을 통한 세부 요소의 이해 정답 ④

<보기>는 「박씨전」에서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작용한 무속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공'은 초당의 후원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을 본 후에 감탄하면서 '박씨'의 신이한 면모와 신과 같은 능력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그 정체성을 깨닫는 현명함의 차원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공'이 '박씨'와 같은 신이한 면모를 지닌 부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공'이 신이한 면모를 지녔다면, '박씨'가 '계화'를 시켜 초당의 후원에 나무를 심어 기르게 한 까닭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공'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박씨'에게 그 까닭을 묻고 있다.

①, ③ <보기>에서, 「박씨전」에서 수목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신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원(뒤뜰)에 심은 나무는 무속적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보여 주는 변화무쌍한 양상은 그것들이 신목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② 오색 흙을 가져다가 동서남북의 사방과 중앙에 각각의 기운을 따라서 나무를 심었다는 [A]의 내용, 수목 숭배 사상은 주역(周易)에서의 오행(五行)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한 <보기>의 내용을 연계할 때 적절한 추론이다.

⑤ <보기>에서 '박씨'의 인물 형상화 양상을 무속적 요소의 차원으로 설명한 내용, [A]에서 '박씨'가 말한 하늘의 조화 관련 내용을 연계할 때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있다.

49. 자료의 적용을 통한 특정 장면의 감상 정답 ①

[B]에는 국가적 혼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①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여성 영웅은 처음부터 그 영웅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⑤ <보기>의 '여성 영웅은 대체로 아름다운 외모에 출중한 능력을 지닌 완벽한 존재로 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박씨'는 여성 영웅 소설의 여느 주인공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50.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은 추한 용모의 '박씨'가 절대가인으로 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①의 '경천동지(驚天動地)'가 가장 적절하다.

② 백년하청(百年河淸) : (중국의 황허 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이르는 말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⑤ 금시초문(今時初聞) :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